

2020년 4차 노인분과 회의록

일 시	2020년 6월 26일(금) 10:00 ~ 11:40					
장 소	화상회의					
참석자(총11명) 11/18 공(0/4) 민(11/14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임화선(공공분과장)	X	김중현(공공)	X	인원교	O
	최재우(민간분과장)	O	박인덕	X	정성걸	O
	이은주(총무)	O	서향숙	X	최성길	O
	김연주	O	신연경	X	한종민	O
	김은주	O	이명식(공공)	X	한지영	O
김장수	O	이민정	O	황윤준(공공)	X	
회의주제 및 안건	<p>1. 보고 및 공유사항</p> <p>1) 전차회의 결과</p> <p>2. 교 육</p> <p>1) 노인인권교육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드라마 ‘동백꽃 필 무렵’ 으로 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클라이언트 인권 지키기 (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)</p> <p>3. 기타</p> <p>1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</p> <p>2) 차기회의 일정</p>					

회 의 결 과

<p>1. 보고 및 공유사항</p> <p>1) 전차회의 결과 - 이견없음</p> <p>2. 교 육</p> <p>1) 노인인권교육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드라마 ‘동백꽃 필 무렵’ 으로 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클라이언트 인권 지키기 (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교육평가 및 의견 공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음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뭘 주겠다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묻는 것이 중요한데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했던 경우가 많음. 이 또한 인권침해일지 않을까 생각해 봄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학술지, 프로그램, 사업 등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함. 이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. 용어정리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이를 직원들과 논의하여 정리하겠음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히려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함.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음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대상자, 클라이언트, 소외계층 등등 사용해서는 안될 용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유해</p>

회의 결과

보면 좋을 것임. 이러한 용어에 관해서 분과에서 논의해서 한번 정리해 봐도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됨.

: 사회복지사 또한 사람의 한 존재로 생각해야 함.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고 나의 입장도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임.

: 사회복지사 또한 침해받은 감정과 인권에 대해 풀어내야 함. 당사자 간 풀어내거나 직장 동료들이 함께 지지해 주고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.

: 당사자-사회복지사의 인권 모두 과정에서 보장이 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.

: 인권교육을 계기로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음.

: 영상을 활용한 강의라 화상교육 방식과 잘 부합했던 것으로 생각됨.

: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어 뿐만 아니라 단어 등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의 언어로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임.

: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했음. 드라마를 활용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들었음.

3. 기타

1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

- 유당마을 : 개원 32주년 행사(내부) 진행 예정 / 유튜브 동영상 공유 예정
- 7/13부터 무더위 쉼터(노인복지관 내) 운영 예정

2) 차기회의 일정

- 일시 : 2020. 7. 15.(수) 10:00
- 장소 : 화상회의

회의 사진

